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하유의 전설
수상내역	장려상(울산경제진흥원장상)
작가	홍구슬
공모분야	시나리오
주요내용	<p>지금으로부터 약 4천 5백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용감하고 소년 '하유'의 이야기가 시작되어 흐른다. 소년이 좋아한 소녀, '서하'가 하늘에 바칠 제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가 대신 고래를 잡아오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해진 하유의 부족에선 가장 아름다운 소녀, 서하를 제물로 올리려 하자 하유는 그것을 막기 위해 신화 속 고래를 잡아오겠다고 약속한다.</p> <p>그러나 14살 하유에게 고래가 헤엄치는 바다는 너무나 무섭기만 하다. 고래를 잡기 위해 떠난 하유의 모험에는 시련과 위기만이 가득하고... 하유가 무사히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위험천만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진다.</p>

## <하유의 전설>

### S#1. 실외/저녁/반구대암각화(과거)

저녁노을이 타오를 때 쯤, 현재 반구대암각화 터에서는 큰 불기둥이 올라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것을 중심으로 짐승 가죽으로 만든 간단한 옷을 걸친 여러 명의 부족 사람들이 발을 구르며 돌고 있다. 모두 신나있는 모습.

덩치 큰 사람들이 모두 신나게 춤추며 괴상한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하유(6세)’는 개구쟁이처럼 ‘서하’와 함께 그곳을 비집고 뛰어 놀며 장난을 친다.

그때 불기둥 앞에 선 ‘타하루(하유의 아버지, 부족장)’가 청동으로 된 지팡이로 땅을 두 번 두드리자 모두가 조용해지고, 어린 하유와 서하도 장난을 멈춘다.

타하루 : (근엄하게, 손을 하늘로 뻗으며) 바로 내일! 우리는 고래를 잡기 위해 바다로 떠난다! (하고 옆에 있는 ‘채루’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표정이 좋지 않은 채루)

모두 : (와- 하고,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기뻐한다.)

타하루 : 하늘이 내리신 그 신성한 동물을 잡아, 우리 부족을 모두 배불리 할 지어다!

모두 : (다시 일동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기뻐한다.)

불기둥의 연기는 하늘 높이 피어 올라가고, 사람들이 춤을 추며 의식을 치르는 동안 서하가 저 멀리 있는 바위 벽면을 향해 달려가고, 뒤따라가는 하유.

재나(하유의 어머니)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바위에 날카로운 돌로 그림을 새기고 있다. 모두가 콧노래를 부르며 작업 중.

서하 : (재나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귀엽게 웃고는)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 예요?

하유 : (서하의 말이 끝날 때 달려와, 숨을 고르며) 엄마, (헉헉) 저게 뭐야?(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엔 고래가 그려져 있다.)

재나 : (서하와 하유를 양쪽팔로 포근히 안으며) 고래란다. 내일 (하유를 보고 이마를 맞대며) 너희 아빠가 잡으러 가는 게 바로 저 고래지.

서하 : (줄려 눈을 비비고, 재나의 품에 스르르 안기며) 고래가 …(하암) 뭔데요?

재나 :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지. (암각화를 한번 바라보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 이제 어서 자야지~?

하유와 서하는 재나의 두 다리에 매달려 하품을 하며 집을 향해 걸어간다.

## S#2. 실외/낮/초원(8년 후)

푸르른 초원이 펼쳐지고, 훌쩍 자란 하유와 서하가 뛰어놀고 있다.

까르르 웃으며 서로 술래잡기를 하는 둘. 부드러운 바람이 둘의 머리칼을 가르고.

결국 하유가 서하를 잡다 넘어져 뒹굴어 넘어진다.

서하를 깔고 엎드린 하유, 둘은 까르르 웃다 눈을 마주치고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하유는 놀라 일어나 서하의 옆에 눕는다. 그때 서하의 봉긋한 가슴을 본 하유가 놀라 묻는다.

하유 : (벌떡 일어나고, 서하를 보며) 너 몸이 이상해!

서하 : 그게 무슨 말이야?

하유 : 너 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시선이 서하의 가슴으로 향하고)

서하 : (어리둥절하여) 내 몸이 뭐!

하유 : 너 몸이…, 마치 엄마 같아.

서하 :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갳게 달아오르고) 그야…, 그야 나도 엄마가 될 거니까…!

하유 : (천진난만하게) 네가 엄마가 된다고? (웃으며)에이~ 네가 어떻게 엄마가 되냐! 엄마가 되려면 너랑 함께 살아야할 아빠도 있어야하고, 네가 아이도 낳아야하는데…

서하 : (영큼하게 웃으며, 하유에게 슬금슬금 다가가) 그야…, 아빠는 너가 하면 되지!

하유 : (다가오는 서하로부터 뒤로 물러나며) 내가…?

서하 : 왜, 넌 내가 싫어? 난 네가 좋은데,(하고 들판의 꽃을 두 개 꺾어 하유의 머리에 하나 꽃고, 자신의 머리에 하나 꽃고)

하유 : (어쩔 줄 몰라 하다 얼버무리며) 나, 나는 사, 사냥을 가야겠다.

서하 : (찢, 하고 웃고) 갑자기 웬 사냥?

하유 : 너 같은 여자애가 뭘 알겠냐!

하고 하유는 숲속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 하유의 뒷모습을 보고 웃는 서하.

그리고 멀리서 이 둘을 바라보고 있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차오의 모습.

### S#3 실외/낮/숲속

뽕족한 돌멩이를 들고 숲속을 터덜터덜 걷는 하유. 큰 바위가 나오자 그곳에 앉아서 쉬었다. 그러니 토끼, 다람쥐와 새들 몇 마리가 그의 곁으로 모여든다.

하유 : (바위에 벌러덩 눕고, 동물들을 바라보더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요즘 서하를 보면 괜히 얼굴이 빨개져. 왜 그러는 걸까?

그 때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조용히 다가온다.

하유 : (한번 힐끔 거리더니, 별떡 일어나)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어린 사슴의 눈을 보고, 마치 그것과 대화를 하듯 눈빛을 주고받던 하유. 그러더니 사슴이 달려가는 곳으로 뒤쫓아 간다.

쫓아간 곳에는 어미 사슴이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절뚝거리다 넘어지기를 반복한다.

하유는 놀라 어미 사슴의 몸에 손을 살며시 올리며, 사슴의 눈망울을 바라본다.

하유 : (걱정스레) 많이 아프니? (쉬고) 사냥을 , (말을 하다 멈칫한다.)

나뭇잎이 부스럭하는 소리와 숲속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걸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사냥을 나왔던 하유 부족의 사람들이다.

하유는 어린 사슴의 눈을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미 사슴을 들쳐 메고 숲속

을 달리기 시작한다. 작지만 날렵한 몸이 숲을 가르며 빠르게 달려간다.  
한참달린 후 사슴을 내려놓는 하유.

사슴을 정성껏 치료해준 후 머리를 쓰다듬는 하유.

하유 : (빙그레 웃으며)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을 거야.

옆에서 하유의 다리를 훑는 새끼 사슴.

어느새 해가 저가고 노을이 타오르고 있다. 숲속에서 마을을 향해 바라보니 잿빛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걸 본 하유는 사슴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빠르게 내려간다.

#### S#4 실외/밤/반구대암각화

하유가 연기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자, 사람들이 불을 지피고 의식을 치르는 모습이 보인다.

서하는 하유를 발견하고 그에게로 뛰어가 어디를 갔었냐하며 꾸짖고 손을 잡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데리고 향한다. 어리둥절한 하유.

재루가 청동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자 일동 조용해진다.

재루 : (근엄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다들 알다시피 우리 부족에게 위기가 왔다! (부족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며 거닐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흉년이 오고 우리의 가족들은 굶주리고 있다!

일동 숙연. 눈치를 보는 하유. 반대편에 하유의 엄마 재나가 보인다.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씩, 하고 웃는다.

재루 : (사람들을 한 번씩 훑어보며) 이는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필요한 게 무엇이겠는가!(아들 차오에게 지팡이로 가리킨다.)

차오는 뚱뚱한 지팡이 끝을 한 번보고 멀리 하유와 함께 서있는 서하를 한 번보고 대답한다.

차오 : 제,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하늘이 보고 흐뭇해질..., (잠시 망설이고) 제물과 함께.

재루 : (흡족해하며) 그렇다! 제물! 지금 하늘이 노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고 지내왔기 때문이다. (하고 지팡이로 서하를 가리킨다.)

흠칫하고 놀란 서하. 하유도 덩달아 놀라 그녀의 손을 꼭 잡는다.

재루가 턱으로 서하를 가리키자, 덩치 큰 남자 둘이 나서서 그녀를 끌어 중앙에 데려와 앉힌다. 하유가 막으려 하지만, 그를 제지한다.

차오도 불안한 듯 그녀를 바라본다.

재루 : (음침하게) 우리 식구 중 가장, 아름답고! 젊은 소녀! (지팡이로 서하의 턱 끝을 들어올린다.) 바로 서하가 아니겠는가!

일동 괴성을 지르지만, 하유와 차오, 재나 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서하는 재루를 노려보며 반항을 해보지만 저지당한다.

재루 : 나흘 밤이 지난 후, 이 여인을 하늘에 올릴 것이다! (매섭게 주위를 둘러보고) 반대하는 자가 있는가?

차오는 두 주먹을 불끈 쥔다. 그리고 그 위로 들리는 하유의 목소리.

하유 : (저 멀리 보이는 암각화를 바라보고) 제가..., 제가! 고래를 잡아오면 서하를 제물로 올리지 않아도 됩니까?

모두가 놀라고, 시선이 하유에게로 집중된다.

걱정스럽게 두 손을 모아 쥐는 재나의 모습.

재루 : (멈칫하고, 크게 웃고 난 뒤, 정색하고) 고래를 잡아 제물로 드린다면 신께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뿐더러, 우리들도 한동안 배불리 지낼 수 있겠지.

사람들 소곤대는 소리.

재루 : (버럭 소리치며) 그러나! 이제껏 고래를 잡으러 떠나서 멀쩡히 돌아 온 이는 없었다. (음침하게 속삭이며) 그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하유 : (고개 숙이고, 눈을 피하며) 그래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루가 하유를 끌고 중앙으로 나와 그의 어깨를 덥석 잡는다.

재루 : (용맹하게) 들었는가! 하유는 다, 다음날 고래를 잡으러 떠날 것이다!

일동 소리를 지른다. 눈이 휘둥그레져 놀라는 서하. 결국 고갯 뿔구는 재나.

재루 : (하유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우리를 배부르게 할 지어다!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재루는 청동팔주령을 흔들며 사람들의 의식을 이끈다. 서하를 바라보는 차오의 모습. 하유를 바라보는 서하의 모습.

#### S#5. 실외/밤/옴막 터(강가)

사각뿔과도 같은 여러 옴막들이 태화강 주변에 몰려 있다.

불을 지핀 흔적, 사냥감을 손질한 흔적 등이 보인다.

강가에는 달빛이 어스름하게 비친다. 강가를 따라 조약돌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저벅저벅 걷는 하유. 그 뒤로 서하가 뒤로 달려와 와락 껴안는다.

서하 : 너무 위험해!

하유 : (뒤돌아, 서하를 어깨를 잡고 마주보고) 괜찮아. 난, 난 강한걸! (쓰게 웃는다)

서하 : 그렇지만, 너희 어머니 어떡해. 너희 아버지도,

하유 : (서하 말 끊고) 서하야!

서하 : (한숨을 푹 쉬며)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하지만 네가 이대로 떠나면, 그리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면...(울먹인다.)

하유 : (활짝 웃으며) 괜찮아. 돌아올 거야. 내가 없으면 넌 같이 놀 사람도 없을 걸?

#### S#6. 실내/밤/동굴

어두운 동굴 안, 재루가 작은 불씨를 피우자 갑자기 흰히 밝아진다.  
그리고 어둠속에서 안으로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차오의 모습.  
재루는 걸어오는 차오를 한번 쓱, 보더니 고개 돌려 외면하고 동굴에 그림을 그린다.

차오 : (망설이다 용기 내어) 아빠, 저도 갈래요!

재루 : ... (개의치 않고 제사 의식과 관련한 그림들을 진흙으로 그려나간다.)

차오 : 만약 하유가 고래를 잡아오면,

재루 : (말 끊고, 무섭게 고개를 휙, 돌려 차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며) 그 높은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고 언젠가 새로운 부족장이 되겠지!

차오 : ... (무서워) 그러니까 제가,

재루 : (다시 음흉하게 웃고) 그런데 말이다, 아들이. (차오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으며) 그 놈이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차오 : 그야...

재루 : 내가 볼 때에 너는 고래를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녀석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차오 : ...!

재루 : 그럼 함께 떠나거라. 그렇다면 넌 그놈과 함께 살아 돌아오면 안 돼.

차오 : (휘둥그레져, 뒷걸음 치고) 아, 아빠 그게 무슨 말씀...

재루 : (차오의 어깨를 끌어 동굴 벽 쪽으로 다가가, 차오의 손을 집어 그의 손에 진흙을 묻혀 벽에 고래와 하유의 모습을 그린다.) 두 놈 모두 고래를 잡다 돌아오지 못하거나, (하유를 그린 곳에 X를 치며) 너가 돌아와 영웅이 되고 서하와 혼을 올리거나.

차오는 놀라 아버지 재루를 조심스레 올려다보고, 재루가 호탕하게 웃자 그의 뒤로 비친 그림자가 무섭게 떨린다.

#### S#7. 실외/낮/고인돌 앞(평야)

바람이 살랑거리는 초원을 넘어 평야로 가면 거대한 고인돌 앞에 하유가 덩그러니 서있다. 고인돌을 바라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하유.



S#8. 실외/낮/해안가(8년전, 과거 회상)

어린 하유가 서하랑 해안가에서 서로 뛰놀며 즐겁게 놀고 있다.  
 재나는 한쪽에서 다른 여인들과 모여 앉아 흙을 뭉쳐 토기를 만들고 있다.  
 그때 강가 멀리에서 배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고, 하유와 서하가 가장 먼저 발견한다.

하유 : (방방 뛰고) 아빠다! 아빠가 돌아 왔어!

서하도 함께 따라 신나하고, 주변에 있던 부족 사람들이 모두 모인다.

육지로 다다른 배에는 죽은 고래가 걸려 함께 들어오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그때 젊은 재루가 하유의 아버지 타하루를 들쳐 메고 나타난다.  
 일동 정적. 침울한 표정의 재루. 타하루를 조심스럽게 땅에 눕히고 무릎을 꿇고 통곡한다. 타하루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는 하유.

하유 : (타하루의 몸을 더듬으며) 아빠, 아빠! (재루를 보며, 울먹이고) 우리 아빠 왜 이래요?

재루는 말이 없고, 멀리서 재나가 달려와 타하루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린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리고,  
 어린 하유는 놀라 영영 울고, 그런 하유를 서하가 글썽이며 안아준다.  
 타하루 목에 걸린 청동장식의 목걸이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인다.

S#9. 실외/낮/고인돌 앞(평야, ‘썬 7’ 장면 이어서)

하늘에 뜬 태양을 바라보며 눈물을 감추는 하유.  
 그 때 어머니인 재나가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싼다.

재나 : (슬피 웃으며) 우리 하유가 오늘 아빠가 많이 보고 싶은가 보구나.  
 하유 : (재나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품에 안기며) 엄마, 미안해요....  
 재나 : (하유를 안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용감한 아들을 두어 기쁜 걸?

하유 : (품에서 떨어져, 어린아이처럼) 엄마 나는 꼭 살아 돌아올 거야.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재나 : 그럼, 하유는 씩씩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엄마가 아빠한테 말할게. 우리 하유를 꼭 지켜 달라고

두 모자, 고인돌 앞에서 애뜻하게 포옹한다. 하늘은 맑다.

#### S#10. 실외/낮/숲

바위에 걸터앉아 숲속 동물들과 함께 있는 하유. 서하가 등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조심스레 다가온다.

하유 : (일어서고, 말없이 어색하게 바라보기만 한다.)

서하 : ... (쭈스러워 고개 숙이고 등 뒤에서 꺼낸 한 손을 내밀고, 손에는 사슴모양의 모형이 달린 목걸이가 쥐어져있다.)

하유 : (얼떨결, 받지는 않고 보기만 한다) 이게 뭐야?

서하 : 이게 널 지켜줄 거야.

하유 : (서하의 상처투성이 손을 말없이 바라보다 받고) 고마워.

서하 : (울음 애써 참으며) 그거 내꺼야. 잠깐 빌려주는 거니까, 꼭 돌아와서 나 다시 줘야해. (하고 뛰어 달아나는)

서하의 뒷모습을 말없이 보던 하유, 서하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목걸이를 매만지다 웃으며 목에 건다.

#### S#11. 실외/낮/반구대 암각화

불을 피워 하늘에 연기가 올라가고, 모든 부족 사람들이 숙연하게 있다.

재루는 붉은 진흙과도 같은 액체를 하유와 차오의 얼굴에 특정 문양을 그려준다.

재루 : (하유에게 문양을 그려주고, 다음 차오에게 그려주며) 하늘이 너희를 지켜 줄지어다. (차오에게 마저 다 그리고 일어나, 하유와 차오의 손을 번쩍 들며 알 수 없는 주문과도 같은 말을 외친다.)

모두 : 일동 환호

하유는 어머니 재나를 한번 바라보고 웃고, 다음 서하를 바라본다.  
 서하, 걱정스럽게 쳐다 보고, 하유는 애써 웃으며 목에 걸린 모형을 웃으며 매만진다.  
 의식을 마친 하유와 차오, 서로의 몸보다도 큰 작살을 등에 매고 뒤를 보이고 떠난다.

## S#12. 실외/낮/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떠난 하유와 차오, 서로 말이 없다.

하유 : (용기 내어) 내가 함께 가준다 할 때 무척 기뻐어.  
 차오 : (차갑게) 너 때문에 가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마.  
 하유 : (웃으며) 그래도 너 같은 친구가,

하유가 말하던 중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둘은 당황한다.  
 하유와 차오가 앞을 바라보니 큰 파도가 밀려와 둘을 위협하고 있다.  
 파도가 한번 휩쓸고 간 자리에 배가 크게 심하게 흔들리고, 그럴 때 마다 정신 못 차리는 둘.  
 파도는 더욱 더 크게, 멈추지 않고 오기 시작한다. 배에 매달려 겨우 버텨 나가고,  
 그 때, 거센 파도에 못 이겨 차오가 배 끝으로 떨어져 바다에 휩쓸려가기 일보직전,  
 하유가 차오의 손을 껌싸게 잡는다. 더욱 심하게 파도가 몰려오고, 요동치는 배.  
 위기의 순간까지 하유는 차오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잠잠해진 바다. 하유는 힘겹게 차오를 배로 끌어 올린다.

## CUT TO

한 순간의 폭풍이 지나자, 진이 빠진 하유와 차오.  
 바다의 무서움을 맞본 차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하유 : (힘겹게 일어나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제 좀 있으면 고래의 무리가 나올 거야.  
 차오 : .... (망설이다) 고마워

하유 : (빙그레 웃고) 고맙긴, 너라도 그랬을 텐데 뭘.

차오 : …

그 때 다시 배가 심히 요동친다.

하유 : 이제 정신을 놓고 있을 틈이 없어.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차오 : (넋 놓고 하유만을 바라보는)

하유 : (밧줄을 들어 자신의 발에 묶고, 배에도 한번 묶고) 고래는 내가 잡을게. 내가 발을 묶고,

차오 : (말 끊고, 신경질 적이다) 왜 고래를 내가 잡는데?

하유 : 우리 둘 다 나서면 위험해져. 내가 발을 묶고 바다에 빠지고, 고래를 잡은 뒤 너가 끌어 올려줘야 해. 어릴 적 아빠한테 고래를 잡는 법에 대해 대충 들은 기억이 있거든.

차오 : (비아냥대며) 잘난 척은,

하유 : (웃으며, 줄을 단단히 묶고) 아무튼 네가 날 잘 끌어 올려줘야 하니, 가장 중요해. 알았지?

그때 배가 또 요동친다. 하유와 차오는 비장하게 일어나 수평선을 바라본다.

물 가르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놀라 주변을 바라보니 작은 고래 들이 옆에서 헤엄치고 있는 게 보인다.

하유 : (조용히 속삭이며) 고래야…!

차오 : (덩달아 조용히) 나도 그 정도는 알아.

하유 : 고래가 숨을 쉬러 올라 올 때 작살을 쏘아야해.

하유와 차오 모두 숨죽이며 주변을 살핀다. 배는 여전히 요동치고 점점 많은 고래가 나타나 헤엄친다.

그 때 가장 큰 고래가 둘의 앞에 나타난다. 고래의 꼬리 쪽에 걸린 배가 고래의 움직임에 따라 배가 크게 휘어진다. 놀라 옆드린 하유와 차오.

차오 : 지금 너가…!

하유 : (차오의 말이 끝나기 전에 멀리서 달려가 도움닫기 후 날라 가 가장 큰 고래의 등에 작살을 쏜다.)

그러자 고래가 크게 움직이고, 그 주변에는 수면이 심하게 요동친다.  
 하유는 작살을 켜 채 고래의 등에 매달려 바다에 빠지기를 수없이 반복.  
 차오는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자 위협을 느낀다. 점점 더 크게 흔들리는 바다.  
 차오는 순간의 공포심에 자신도 바다에 빠질까 두려워 배에 묶여 있던 밧줄을 푼다.  
 차오의 손이 벌벌 떨려오는 와중에도 배가 심히 흔들리고 물이 들이 닥친다.  
 차오가 마침내 하유의 발에 연결된 밧줄을 풀자 배는 멀어지고 고래 무리는 멀어져 갔다.  
 차오는 배와 함께 휩쓸려갔고, 잠시 후 바다엔 정적이 흐른다.  
 바닷물에 훌쩍 젖어 멍하니 앉아 있는 차오. 더 이상 고래의 무리나 하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 S#13. 바다 속

하유는 고래의 등 뒤에 큰 작살을 꽂은 채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  
 푸른 바다위로 점점 고래의 붉은 피가 번져가고, 크게 움직이는 고래 때문에 하유도 점점 정신을 잃는다.

하유(N) : 아빠..., 도와주세요.

결국 정신을 잃고 작살을 놓치는 하유.  
 그때 바다 밑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바다거북과 물고기 떼들이 하유의 주변으로 몰려든다.  
 큼지막한 바다거북이 등껍질에 하유를 올리고 그 주변을 수많은 물고기들이 에워싸 헤엄치기 시작한다.  
 마치 인어처럼 바다를 가르며 가는 하유. 햇빛이 비추어 오는 수면 위로 헤엄쳐간다.

#### S#14. 실외/밤/해안가(육지)

정신을 잃은 하유가 해안가에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얹어져있다.  
 그 옆에는 하유가 작살을 꽂은 고래가 함께 누워져 있다.  
 그 멀리에선 인적이 보이는 불빛들이 보이고, 그 곳에서 한 꼬마 여자아이가 다가

온다.

꼬마 : (이리저리 살펴보다, 하유에게 다가가, 얼굴을 때리며) 저기요! 이봐요~ (고개 돌려, 목청껏) 엄마!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온다.

하유네 부족 사람들과는 다른 복장과 차림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들은 하유의 옆에 있는 죽은 고래를 보며 기겁하며 놀라 뒷걸음친다.

몇몇은 놀라 도망치기 까지 한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근엄한 표정의 부족장이 나탄다.

#### S#15. 실외/밤/평야

이곳저곳에 불이 지펴져 있고, 부족의 사람들이 모두 동그랗게 모여 있다.

그 중심에는 하유가 손발이 묶인 채 누워져 있고, 부족장과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부족장이 턱으로 하유를 가리키자 그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꿰어앉히고 매질을 한다.

그 때 서서히 눈을 뜨는 하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부족장 : (나무 막대로 하유의 턱을 들며)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나.

하유 : (기침만 심하게 한다.)

보초인1 : 이자가 고래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 일동 기겁, 서로 속닥이며 소곤거린다.

부족장 : 조용! (나무 막대로 하유의 어깨를 짓누르며) 네놈이 고래를 죽인 것이 맞느냐!

하유 : (넋을 놓고 있다 번뜩 정신을 차리고) 고, 고래! 고래는 죽었나요? 어딴죠?

보초인 2: 잔말 말고 묻는 대답에 대답해! (하고 발로 하유를 걷어찬다.)

부족장 : 네가 신성한 존재를 죽인 게 맞냐 물었다.

하유 : (얼떨떨하여) 네, 네. 제가…,

하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부족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소리친다. 잔뜩

화나있는 표정으로 괴성을 지른다. 한편 영문을 모르는 하유.

하유 :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야합니다. 저 좀 빨리 풀어,

부족장 : (하유의 목살을 잡고) 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 사람이길 포기했으니 죽음으로 그 죄를 다스리는 수밖에! (하고 하유를 뿌리친다.)

하유 : (화들짝 놀라) 죄요? 죄라뇨! 제가 무슨 죄를,

보조인1 : (일어나려는 하유 누르며, 귀에 대고 무섭게 속삭인다.) 고래를 죽인 것은 우리의 신을 모독한 것이고, 곧 우리를 욕보인 것이다!

부족장 : (등을 돌려, 모든 부족 사람들에게 외친다) 내일 해가 지기 직전에 신을 욕보인 이 자의 죄를 다스릴 것이다! 그동안에 이 자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가져다주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함께 죽음으로 다스릴지 어다!

그러자 모두 알 수 없는 언어로 괴성을 지른다.

하유를 가장 먼저 발견한 꼬마는 엄마의 등 뒤에 숨어 겁에 질린 채 하유를 쳐다본다.

#### S#16. 실외/아침/평야

이른 아침이라 적막하고 하유도 나무에 묶인 채 잠들어 있다.

그때 꼬마가 나타나 기웃거린다. 하유의 이곳저곳 살피다 하유가 움직이니까 덩달아 화들짝 놀라 숨어 버리는 꼬마.

하유가 눈을 떠 두리번거리자 꼬마가 조심스레 하유의 곁에 다가간다.

꼬마 : ... (멀뚱히 서 하유를 바라보는)

하유 : 안녕?

꼬마 : (주변을 살피며 두리번거리고 겨우 웃으며 손을 흔들고, 하유의 목걸이 가리키며) 근데 이거 뭐야?

하유 : (고개 숙이고, 목걸이 보고는 웃고) 내 친구가 만들어 준거.

꼬마 : (눈치 보며) 나도 그런 거 갖고 싶다...

하유 : (당황하고) 미안, 친구가 준거라 못줘. 그런데 꼬마야, 나 물 한모금만 줄 수 있을까?

꼬마 : (뒤로 물러나며) 안 돼. 나쁜 사람이랬어.

하유 :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꼬마 : (의심의 눈초리로 그저 바라본다.)

하유 : (!) 아, 그럼 내가 내거랑 똑같은 걸 만들어 줄게.

꼬마 : 진짜?

하유 : 응, 금방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 좀 잠시만 풀어주면 안될까?

꼬마 : (우물쭈물해 하며) 하지만 나쁜 사람이라 그럼 안 되는데...

하유 : (웃으며, 달래고) 네 것만 만들어 주고 다시 묶으면 되잖아, 응?

꼬마 : (따라 웃으면서 묶인 하유를 풀어준다.)

## S#17. 실외/낮/숲

마을 뒤편에 있는 숲으로 향한 하유와 꼬마. 꼬마는 어딘가 불안해하며 하유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간다. 하유도 이리저리 살피며 숲으로 들어간다.

꼬마 : 그걸 만들려면 꼭 여기로 가야해?

하유 : (건성으로 듣고, 계속 두리번거리며) 어..., 어. 재료를 구해야하거든. (문득, 꼬마를 바라보며) 그런데 너는 이걸 왜 갖고 싶은 거야?

꼬마 : (방긋 웃고는)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처음 봐! 나도 그런 거 친구한테 주고 싶다...

하유 : (목걸이 만지며 보고는 꼬마 보며 함께 웃는다.)

## CUT TO

허리에 차고 있던 작은 돌칼로 나무토막을 깎고 있는 하유.

꼬마는 신기한 듯 하유의 손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본다.

하유 : (굵적이며) 이런 건 내 친구가 더 잘하는데...

꼬마 : (돌칼을 가리키며) 이건 뭐야? 돌이야? 되게 뽕족하다. 짐승한테 해도 아프겠지?

하유 : (웃으며) 이건 이렇게 뭘 만들 때만 쓰는 칼이야,

그 때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하유는 놀라 도망치려는 순간 꼬마가 눈에 밝힌다. 아직 모형은 다 완성하지 못했다. 하유는 어쩔 줄 몰라 하다 꼬마에게 돌칼과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전해준다.



하유 : (다급하게, 칼과 모형을 쥐어주며) 미안, 다 못 만들어 줘서, 내가 하는 거 봤지? 꼬마 너도 만들 수 있어! (발걸음을 떼며) 고마웠어, 정말. 그건 내 선물! 어른 들께는 내가 널 데려왔다 해! 네가 어리니까 크게 혼내진 않으실 거야…!

하유는 말을 흐리며 웃으며 손을 흔들고 도망친다. 부족 사람들은 하나 둘씩 불과 무기를 들고 쫓아간다. 꼬마는 남은 자리에서 하유가 손에 쥐어준 칼과 모형을 보고 환하게 웃는다.

#### S#18. 실외/저녁/깊은 숲속

하유는 정신없이 더 깊은 숲속으로 도망치고 부족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온다. 해가 조금씩 저물어 하늘은 주황빛이 되었고, 숲속은 나무그늘에 가려져 꽤 어둡다. 하유가 점점 힘이 풀려 힘들어 할 때 째, 어린 사슴새끼가 하유 앞으로 뛰어온다.

하유 : (잠시 멈춰, 사슴의 눈을 보며) 어디로 가라고…?

하유의 말이 끝나기 전에 어린 사슴이 달아나고, 하유도 뒤에 홀린 것 마냥 사슴을 따라 간다.

어린 사슴을 따라 달려간 곳에는 작은 호수가 있고 그 앞에는 하늘 높이 솟은 커다란 나무가 있다. 하유는 그 크기에 놀라 고개를 한참 올려 나무를 바라본다. 그 때 굵은 나무 기둥 뒤에서 큰 수사슴 한 마리가 나타난다. 그러나 보통 사슴의 크기와는 달리 비정상적으로 훨씬 큰 크기의 사슴, 사슴 신(神)이다. 그것의 몸에는 푸른빛이 돌고 있다.

사슴 신이 걸음을 떼어 다가오자 하유는 놀라 뒷걸음치다 넘어진다.

그 때 멀리서 부족의 사람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하유. 사슴 신은 그런 하유를 물어 제 몸 뒤로 넘긴다. 하유는 사슴 신의 목에 살포시 손을 올리고 눈을 감는다.

하유 : (눈을 감고 있다, 놀라서 다시 뜨고) 이 뿔을 올라가라고? 하지만…,

사슴 신 : (위로 고개 짓 한다.)

하유 : …,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하유는 사슴 신의 목을 타고 올라가 커다란 뿔을 하나하나씩 타고 올라간다.  
 몸의 크기만큼이나 그 뿔도 크고 험난하여 끊임없이 오르는 하유.  
 다 타고 오르자 하늘 높이 솟아, 그 끝을 모르겠는 나무의 가지에 가까워지고, 하유  
 는 그곳에 뛰어 오른다.

#### S#19. 실외/낮/해안가

하유네 부족 사람들이 모여 있다. 남자들은 잡아온 사냥감을 인원에게 맞게 나누고  
 있고, 여자들은 모여 곡식을 다듬고 있다.  
 서하는 힘없이 바위 위에 앉아 돌칼로 나무를 깎고 있다. 그 때 손을 잘못 놀려 칼  
 에 손이 베여 피가 흐르고, 서하는 불길한 예감에 인상을 쓴다. 그 때 멀리서 배를  
 타고 오는 차오가 보이고, 서하가 그를 가장 먼저 발견한다.

서하 : (벌떡 일어나, 흥분된) 하유! 하유가 왔어요! 하유랑 차오가 돌아 왔어요!

일을 하던 부족 사람들은 모두 서하의 목소리를 듣고 한곳에 모여 차오를 맞이한  
 다. 차오가 육지에 다다르자 그 중 재루가 가장먼저 차오에게 달려가 안는다.

재루 : (차오를 와락 껴안으며) 아들이!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서하 : (당황하여) 그런데 하, 하유는? 하유는 어디 갔어?

그러자 사람들 놀라고, 그 중 재나가 울면서 뛰쳐나온다.

재나 : (울먹이며, 차오 붙잡고) 차오야, 우리 하유는 어디 있니? 우리 하유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오는 거야, 응?

재루 : (재나를 밀쳐내고, 차오를 감싸며)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차오를 달래며)  
 아들이, 천천히 설명해다오. 그래서 고래는 잡지 못한 것이냐?

고래를 잡지 못했다는 말에 말소리가 커지는 사람들, 차오는 고개를 숙이고 안절부  
 절못해한다.

재루 : (근엄하게, 크게 외치며) 조-용-

차오 : (떨리는 목소리로) 제,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 하유가 호, 혼자 고래를 잡겠다고 하는 바람에...

재루 : 혼자 잡겠다고 하는 바람에?

차오 : (눈치 살피며) 제가 도, 도우려 했는데, 기어코 혼자 잡아야 자기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호, 혼자 바다에 뛰어 들어갔어요...

서하 : (불쑥 나서며, 분노) 거짓말! 거짓말이야!

재루 : (서하를 한번 찌려보고, 부족 사람들을 한번 훑고, 침착하게) 그렇담 하유는 제 영웅심에 빠져 욕심을 부리다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군. 하마터면 차오 또한 목숨을 잃을 뻔 했어. 비록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온 차오에게 격려를! 그리고 하유에겐 애도를 표하라!

재나 : (울먹이며) 우리 하유를 그렇게 말하지 마!

재루 : (비아냥대며) 누구 하나 그의 등을 떠민 자는 없어. 그 스스로 나선 것뿐이지.

재나 : 어떻게 타하루도, 하유도 당신들 부자를 만나면 다들 저 세상으로 가는 건지 알 수 가 없군!

재루 : (재나의 턱을 세계 붙잡으며, 가까이 다가가 속삭인다) 한번만 그탄 소리를 입에 더 담았다간 네 남편과 아들 곁으로 갈 줄 알아. (하고 재나를 내리치고)

내동맹이쳐진 재나는 울먹이고, 그런 그녀를 끌어안는 서하. 동시에 재루와 차오를 노려본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차오.

S#20. 나무 위 ( ‘썸 18’ 이어서)

사슴 신의 뿔 위에서 내려 나무 가지 위에 서있던 하유, 영문을 몰라 일단 나무를 조금씩 오르다보니, 나무 기둥을 타고 둥글게 이어져있는 계단을 발견한다.

조심스레 천천히 계단을 오르던 하유, 주변을 둘러보니 나뭇가지에서 죽은 사람의 혼령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겁한 하유는 놀라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고,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혼령들은 그런 하유를 무서우리만큼 쫓아와 달려든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던 하유가 정신없이 계단을 타고 위로 오를 때에, 한 가지에서 죽은 아버지 타하루의 영혼을 본다.

하유 : (달려가다, 멈추어 서서) 아, 아빠...?

타하루 : 하유야. 하유구나. (웃으면서 하유에게 다가간다.)

하유 : (눈물을 흘리며 가지 쪽으로 달려가 타하루 품에 안기려 하지만 영혼이라 잡히지 않는다.) 아, 아빠....

타하루 : (자상히) 우리 하유가 참 많이 컸구나.

하유 :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한번도,

하유는 말하려는 순간 죽은 혼령들이 무섭게 달려들고, 하유는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때 타하루가 팔을 크게 들어 기합을 외치자 시간이 멈추고, 혼령들도 멈추었다.

하유 : (어리둥절해 하며) 아빠....

타하루 : 시간이 얼마 없구나. 손을 건네어 보렴. (하고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 하유의 손위에 올려준다.)

하유 : (손위에 올려진 투명한 머리카락을 바라보고) 이게 뭐예요?

타하루 : 네가 알아야 하는 나의 기억이란다. 이렇게라도,

타하루가 말하는 순간 다시 시간이 멈춘 것이 깨지고 혼령들이 달려든다.

타하루는 하유를 어서 보내고, 하유도 머리카락 한 가닥을 손에 쥐고 마지못해 계단을 마저 오르기 시작한다.

순간 하유가 머리카락을 세게 쥐자, 실과도 같았던 가닥이 딱딱하게 굳어 산산조각이 나고 순간 하유의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와 하유가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타하루의 과거의 기억이 하유의 눈 앞에 펼쳐진다.

8년 전 타하루와 재루가 고래를 잡으러 떠났던 때에, 재루 역시 차오가 하유에게 했던 것처럼 배신을 하여 타하루가 죽게끔 한 장면이 하유에게 보인다.

## S#21. 천상계

하유가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뜨니 온 세상이 하얗다.

하얗기만 할 뿐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천장인지 모를 공간에 하유가 떠있는 것처럼 누워있다.

하유가 힘겹게 일어나는 순간 저 멀리서 푸른빛을 띠우는 하얀 학 한 마리가 다가온다.

하유 : (눈을 뜨기 힘들어하며) 누, 누구시죠…?

그러자 걸어오던 학이 날개를 펼쳐 날아오더니 여신(두름)으로 그 모습이 변한다.  
아름다운 얼굴에 신비로움을 갖춘 여신에 하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두름 : (우아하게)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다.

하유 : 그게 무슨….

두름 :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으나, 네가 해야 할 일도 있다.

두름이 손을 뻗자 그 위로 청동검이 생겨나고,

두름 :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아흔 아홉 가지의 구슬이 필요하다. 그 중 한 한 가지라도 없으면 세상은 돌아갈 수 없지.

하유 : 그 아흔아홉 가지의 구슬이 무엇인데요?

두름 : 빛과 어둠부터 시작하여 비와 바람과도 같은 것들이 있고, 사랑과 평화와 같은 것들도 있지. 그런데 이러한 아흔아홉 가지의 구슬 중 사령이 서른하나의 구슬을 가져갔다.

하유 : 사령이 누구죠?

두름 : 지하계의 신이지. 악을 만들어내는 신이자. 때문에 네가 이 청동검을 들고가 빼앗긴 구슬을 가져와야 한다.

하유 : (놀라) 제가 왜 그것들을 가져와야 하나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

두름 : 너희 부족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비와 바람과 구름이 필요한데 그 서른하나의 구슬 중 그 세 가지가 있다. 지금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도 그것이 아니더냐. 또한 믿음과 약속과도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다. 네가 사랑하는 이를 구하고 싶다면 그 구슬들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하유 :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두름 : 그래서 너에게 이 청동검을 주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것의 몸통을 찢러라.

하유 : (두려워하며, 청동검을 건네어 받고) 전 이렇게 무겁고 단단한 칼을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름 : 하지 않겠단 말인가? 너에겐 서하도 있고, 어미도 있으며, 아비의 기억도 받았을 텐데….

하유 : (눈을 번쩍 뜨고, 망설이다)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유가 말을 끝내자마자 두름은 하유가 서 있는 곳을 가리켜 손으로 그림을 그리자 하유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 S#22. 지하계

하유가 눈을 뜨니 어둡고 음침한 곳에 앉아 있는데, 쥔 손을 떼자 끈적한 것이 묻어 나온다.

그 때 그 길이와 굽기가 가늠이 되지 않는 구렁이 한 마리(사령)가 혀를 날름거리며 하유에게로 다가오고, 하유는 놀라 겁을 세계 쫓는다.

하유 : (당차게) 당신이 사령인가요?

사령 : (음흉하게 웃으며) 기껏 보낸 게 네놈과 같은 꼬마라니.

하유 : 구슬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령 : (크게 웃고)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당연히 줄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닐 테지. (하유가 들고 있는 청동검을 들고, 비아냥대며) 에헤이, 그걸로 날 찔러 보시 겠다? 두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마 지금 네가 더 잘 알았을 것이다. (하유에게 더 바짝 다가가, 몸을 돌돌 말며) 날 상대할 자신이 없으니 네놈을 보낸 거 아니겠느냐.

하유 : (사령이 몸을 조여오자 고통스러워한다.) 난..., 그 구슬을..., 꼭 얻어야... (더 세계 조여오고)

사령 : 어둠이 빛을 낳고, 악이 선을 낳는 법이니, 두름 역시 내가 낳은 것이라 할 수 있지. 그러니 네놈도 내말을 듣지 않을 터냐? 난 적어도 네게 이런 무모한 짓을 시키진 않을 게다.

하유 : (고통스러워) 으...

사령 : 네가 그 두름의 청동검을 들고 달아난다면, 난 네가 전쟁의 신이 되게 할 수 있지.

그리고 암전.

#### S#23. 실외/낮/전쟁터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 먹구름이 끼어 있고, 이곳저곳에선 곡소리가 난다.

사람들이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 중심에 하유가 서있다.

하유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 하유가 만났던 ‘꼬마’가 하유의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 하유, 놀라 뒷걸음치는 순간 꼬마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발견한다. 전쟁이 휩쓴 자리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는 하유, 비명을 지른다.

#### S#24. 지하계 ( ‘썬 22’ 에 이어서)

하유의 비명소리와 함께 다시 돌아와 눈을 뜨고, 사령은 하유를 조이며 크게 입을 벌려 잡아먹으려하고 있다.

하유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발휘하여 청동검을 들어 사령의 눈을 찌른다.

그러자 듣기에 힘든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 빛들이 퍼져나간다.

사령이 몸을 이리저리 던지며 괴로워 할 때에, 몇 개의 구슬들이 깨져 나간다.

그 때, 하늘에서는 동아줄이 내려오고 하유는 단번에 그 줄을 잡는다.

그러자 다른 남은 구슬들도 하유와 함께 떠오른다.

#### S#25. 실외/낮/해안가

서하가 바위에 앉아 나무를 깎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때 자갈이 밟히는 발걸음소리가 들려온다. 서하가 뒤를 돌아보니 하유가 웃으며 서있다.

서하 반가워,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유에게 달려가 품에 안긴다.

서하 : (하유의 몸을 더듬으며) 하유야, 너 정말 하유 맞니?

하유 : (웃으며) 그럼 귀신이 살아오기라도 했겠니?

서하 : (활짝 미소를 짓고, 크게 외치며) 하유가 왔어요! 하유가 돌아왔다 구요! (하고 하유의 손목을 잡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 S#26. 실외/낮/반구대암각화

부족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고,

서하가 그곳으로 향해 하유를 끌고 달려간다. 모두 놀라는 표정. 특히 차오와 재루는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기겁한다. 그 중 재나는 사람들을 뚫고 나와 달려와 하

유를 껴안는다.

재나 : (놀라, 울먹이며) 하, 하유니? 하유가 돌아온 거야?

하유 : (꼭 껴안으며) 그럼요. 꼭 무사히 돌아온다 했잖아요.

재나 :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사람들 모두가 축제의 장처럼 기뻐한다.

그 때 재루가 나타나 모두를 진정시킨다.

재루 : (정색하며) 네가 무사히 돌아와 기쁘구나. 허나 너는 고래를 잡아오지도 못했고,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다.

일동 숙연해진다.

재루 : (서하를 바라보며) 그렇다면...

하유 : (서하를 자기 뒤로 감추고) 말씀대로 고래는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를 한번 보고, 다시 재루를 노려보며) 하지만, 제가 비를 내리게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무슨 소린가 하여 눈이 휘둥그레진다.

재루 : (분노) 네가 비를 내리게 한다고? 네가 하늘의 아들이 아닌 이상 그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 하더냐!

하유(N) : (눈을 지그시 감고)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하유가 청동검으로 땅을 세게 내려치니 세 개의 구슬이 땅 위로 솟아 올라왔다.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 부족 사람들. 세 개의 구슬은 하늘로 향하더니 ‘팻!’ 하고 터져 색색의 빛을 내고, 그러는 동시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비가 조금씩 내려온다.

부족 사람1 : 비다! 비가 내린다! 드디어 비가 내려!

부족 사람2 : 하유가 하늘의 뜻을 받들고 왔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해 주게 되었어!



사람들 모두가 기쁨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며 땅을 구르기 시작한다.  
비를 맞으며 당황하는 재루와 차오.

재루 : 아니, 어떻게…!

하유 : (재루에게 다가가 귀에다 대고 속삭이며) 제가 하늘의 뜻을 받음과 동시에 하늘에 있던 아버지도 만나고 왔습니다.

재루 : (기겁한다.)

하유 : (어두운 표정으로) 처음에는 삼촌에게도 똑같이 돌려주려 했습니다만 (옆에 차오를 한번 보고) 저와 같은 상처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재루 : … (주저 앉고)

하유 : (차오에게 다가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청동검을 건네어주며) 자, 이걸 네가 가져.

차오 : (발끈한다) 어째서 날 때려죽이지 않는 거지? 내가 널, (서하를 보고 망설인다) 내가 널…!

하유 : 착각 하지마. 절대 네가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차오 : … (의아하다)

하유 : 내가 그것을 가져보니 그 무게를 알겠더라. 그 무게를 너에게 지게 하는 거야. 네가 그것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걸 볼 거야. (하고 웃는다.)

차오 : (눈물 글썽이며, 청동검을 바라본다.)

하유는 그리고 등을 돌려 재나에게 달려가 안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서하역시 안아준다. 셋은 서로를 열싸 안으며 미소를 주고받는다.

다른 부족 사람들은 여전히 비를 맞으며 축제의 분위기다.

## S#27. 실외/낮/초원

서로 장난을 걸고 초원을 달리는 하유와 서하. 행복하게 웃음을 지으며 뛰어논다. 그리고 서로 붙잡고 뒹굴며 하하 웃는, 초원에 나란히 누운 둘. 하유의 목에는 아버지 타하루의 것과 같았던 청동장식의 목걸이가 걸려있다.

하유 : (숨을 고르며) 서하야. (망설인다) 우리, 그러니까…,

서하 : (활짝 웃으며) 우리 뭐?

하유 : 그러니까... (하고 일어나 앉는)

서하 : 그러니까 뭐~ (하고 따라 일어나고)

하유 : (웃으면서 들꽃을 꺾어 서하의 머리에 꽂고) 내가 아빠가 되고, 네가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것처럼,

서하 : (하유가 말하던 중 그의 볼에 쪽! 하고 입을 맞추고) 그런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하고 배시시 웃는다.)

하유 :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고 서하의 입에 입을 맞춘다.)

서하와 하유, 둘 웃으며 입 맞추고 서로 깎지 낀 손을 마주 잡는다.

그리고 Fade Out

-끝-